

2015 / 06 / 23 (TUE)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소폭 상승.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강세.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원익IPS, 에스에프에이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LG디스플레이, 한글과컴퓨터 약세.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투자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2016년까지 실적호조가 지속될 것 이란 전망에 원익IPS가 6.6% 상승 마감.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96.07	0.3%	-6.5%	-72 억	-87 억
KRX Semicon	1,950.51	1.3%	3.9%	46 억	-15 억
(코) 반도체	1,012.45	1.0%	27.0%	79 억	45 억
(코) IT H/W	416.26	0.9%	19.4%	46 억	21 억
(코) IT S/W	2,225.94	0.1%	11.3%	-156 억	-19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81,000	1.2%	-3.5%	312 억	-98 억
LG전자	51,600	1.8%	-12.7%	74 억	-66 억
삼성SDI	117,000	-2.1%	0.9%	11 억	-24 억
삼성테크윈	31,300	-2.0%	31.2%	6 억	-3 억
서울반도체	16,800	0.9%	-16.8%	-1 억	-4 억
신도리코	65,900	0.2%	-2.8%	0 억	-1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3,850	0.7%	-8.2%	-303 억	47 억
이오테크닉스	96,400	1.7%	-23.1%	2 억	16 억
원익IPS	16,150	6.6%	15.8%	31 억	35 억
리노공업	48,750	1.8%	27.3%	-1 억	-2 억
유진테크	17,950	2.6%	11.1%	2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6,500	-1.0%	-12.6%	-7 억	-9 억
SK C&C	281,500	1.4%	31.9%	-1 억	72 억
포스코 ICT	5,130	0.6%	-3.2%	2 억	-1 억
다우기술	18,300	0.5%	53.1%	-3 억	1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31,000	-0.5%	-11.4%	12 억	6 억
다음카카오	106,600	-1.1%	-13.8%	-45 억	0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6,500	-2.0%	-21.2%	-62 억	-75 억
에스에프에이	50,500	2.9%	1.7%	-7 억	23 억
솔브레인	50,000	-0.4%	55.5%	-7 억	3 억
덕산하이메탈	8,030	-1.2%	-28.0%	0 억	-1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1,800	0.2%	-5.3%	17 억	-26 억
LG이노텍	109,000	0.0%	-3.1%	32 억	35 억
파트론	8,480	-0.6%	-27.8%	-10 억	-1 억
루멘스	4,780	1.7%	-32.2%	3 억	-1 억
일진디스플레이	9,070	-1.1%	33.0%	0 억	0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85,000	-1.3%	1.6%	-44 억	-2 억
컴투스	137,600	-2.1%	3.7%	-6 억	-16 억
NHN엔터테인먼트	57,600	-0.2%	-34.2%	-6 억	-4 억
게임빌	92,000	-1.1%	-23.8%	-24 억	1 억
위메이드	39,000	1.6%	3.2%	-16 억	-4 억
선데이토즈	17,200	3.9%	0.0%	-2 억	12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35,800	-2.4%	437.8%	-9 억	5 억
한글과컴퓨터	17,450	-1.7%	-13.6%	3 억	-18 억
코나아이	32,350	-1.4%	-4.0%	-11 억	8 억
슈프리카	21,700	0.0%	-14.7%	2 억	-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4.22	0.9%	4.9%
MSCI Internet	163.11	1.0%	6.8%
MSCI Software	170.89	0.7%	4.5%
MSCI Semicon	223.87	1.0%	1.7%
MSCI IT Services	126.01	0.9%	7.0%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59.68	0.4%	5.5%
Facebook	84.74	2.7%	8.6%
Tencent	157.00	1.8%	39.6%
Baidu	209.64	-0.6%	-8.0%
Yahoo	40.73	0.5%	-19.4%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6.23	0.3%	-0.5%
Oracle	41.49	-0.2%	-7.7%
SAP	74.81	3.0%	7.4%
EMC	27.30	0.8%	-8.2%
Symantec	23.82	-1.0%	-7.2%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7.61	0.8%	15.6%
Nokia	7.30	1.5%	-7.1%
Lenovo	11.28	-0.4%	10.6%
ZTE	20.75	5.3%	23.2%
HTC	77.9	-3.0%	-45.1%

Semicon	close	1D	YTD
Intel	32.26	0.6%	-11.1%
Qualcomm	67.36	0.7%	-9.4%
Texas Instruments	55.50	1.8%	3.8%
Micron	24.63	0.7%	-29.6%
Toshiba	426	-0.2%	-16.9%
Renesas	943	1.4%	14.6%
STMicro	8.30	3.9%	11.1%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7.73	0.4%	4.5%
HP	31.70	-0.3%	-21.0%
Accenture	98.59	1.6%	10.4%
Fujitsu	724	0.4%	12.4%
NTT Data	5,290	0.8%	17.2%
CSC	67.41	-0.4%	6.9%

Hardware	close	1D	YTD
GE	27.42	0.7%	8.5%
Panasonic	1,715	0.4%	20.2%
SONY	3,732	2.1%	50.9%
Whirlpool	184.93	-1.4%	-4.5%
Electrolux	273.90	4.8%	19.7%
Haier	21.10	-0.5%	14.3%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1,000	0.0%	58.5%
KYOCERA	6,422	1.1%	15.6%
Nidec	9,128	-0.1%	16.3%
TDK	10,100	1.4%	41.1%
Ibiden	2,118	0.9%	18.5%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6	-0.6%	-38.1%
Japan Display	514	-0.8%	38.9%
AUO	4.77	2.1%	-6.3%
Innolux	16.75	1.8%	8.8%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312 억	SK하이닉스	-303 억
LG전자	74 억	LG디스플레이	-62 억
LG이노텍	32 억	다음카카오	-45 억
원익IPS	31 억	안랩	-44 억
삼성전기	17 억	엔씨소프트	-44 억
파루	12 억	웹젠	-27 억
NAVER	12 억	게임빌	-24 억
삼성SDI	11 억	위메이드	-16 억
아프리카TV	9 억	엠씨넥스	-14 억
STS반도체	9 억	토비스	-11 억
LS	9 억	코나아이	-11 억
ISC	8 억	파트론	-10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SK C&C	72 억	삼성전자	-98 억
SK하이닉스	47 억	LG디스플레이	-75 억
원익IPS	35 억	LG전자	-66 억
LG이노텍	35 억	삼성전기	-26 억
비아트론	26 억	삼성SDI	-24 억
에스에프에이	23 억	한글과컴퓨터	-18 억
이오테크닉스	16 억	컴투스	-16 억
네오위즈인터넷	12 억	웹젠	-14 억
선데이토즈	12 억	한국사이버결	-13 억
코나아이	8 억	LS	-11 억
동진세미캠	8 억	삼성에스디에	-9 억
NAVER	6 억	에프에스티	-9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869.65	-0.4%	-9.5%
DDR3 2Gb (Spot)	1.56 \$	-0.6%	-29.4%
NAND 64Gb (Spot)	2.64 \$	-0.4%	9.1%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3 \$	-3.5%	-11.7%
LCD TV 50" Open Cell	199 \$	-0.5%	-1.0%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원익IPS	6.6%	실적전망

News & Issue

원익IPS, 삼성전자 투자확대의 최대 수혜

원익IPS는 삼성전자에 PECVD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DRAM에서는 공정 미세화에 따른 듀얼패터닝과 쿼드패터닝 스텝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증착 장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중국 시안 Fab에서의 3D NAND의 생산 Capa 확대로 인해 과거 동일 공정,

동일 Capa. 기준으로 증착 장비의 실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15년 이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에서의 증착 장비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원익 IPS의 증착 장비 수주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원익IPS의 경우 메모리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로도 핵심 증착 장비가 납품이 되는데, 14나노 FinFET의 Capa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연말 기준으로는 전체 삼성전자 비메모리 Capa의 40% 수준에 이르는 등 비메모리로의 장비 납품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더불어 작년에 시작했던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제휴 관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인 물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글로벌 파운드리로의 장비 납품도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

올해 예상실적은 매출액 6,621억원, 영업이익 1,224억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대비 19%, 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 2016년에도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증가 수혜로 인해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어 매출액 7,426억원, 영업이익 1,308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중 메모리 반도체 진출,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에게 기회"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이 국내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에게 큰 기회가 될 거란 분석 제기됨. 국내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 감안하면 중국 업체들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 국내 LCD 장비 업체들의 중국 발 수주 러시가 몇 년 후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서도 재현될 수 있을 거란 전망.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본격 진출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아직 여론은 '성공 가능성 희박', 또는 '기술적 장벽 때문에 찾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본이 크게 비웃던 1983년 한국의 DRAM 생산 선언 12년 후 한국이 DRAM 1위 국가가 된 점을 돌이켜보면 중국이라는 백그라운드 존재는 무시하기엔 너무 막강한 것이 사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력 지원을 감안하면, 중국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진출 행보는 빠른 것으로 예상. 빠르면 2017년, 늦어도 2020년이면 의미 있는 숫자의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술 격차를 감안하면 세계 1, 2위인 국내 업체들에게 위협요소가 되진 않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칠 요인이 될 수 있음.

중국 기업들에게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디자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공정 기술인데 국내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오랜 협업을 거쳐 각종 공정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선데이토즈	3.9%	최근이슈

News & Issue

선데이토즈 '신작효과'로 실적부진 극복 전망

선데이토즈에 대해 하반기 상하이 애니팡, 애니팡 맞고를 통해 실적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세. 애니팡 사천성 이후 히트작 부재로 지난해 2분기 이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지만 하반기 애니팡 맞고(9월 예정), 상하이 애니팡(7월 예정) 등 4~5개의 캐주얼 게임을 출시하며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부진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됨.

선데이토즈는 추가로 4분기 aeria를 통해 유럽-북미지역 등에서 애니팡2를 출시할 예정이며, 가장 큰 히트 게임인 애니팡 시리즈의 최신작 애니팡3는 현재 기획 중으로 내년 초 출시할 계획.

카카오게임하기 고포류 허용 부분은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황상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게임 업체들의 자체 출시 등으로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의 매출이 1분기 최초로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하며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의 경우 과거 한게임에서 이미 고포류를 통해 성공했던 경험이 있고, 또한 선데이토즈 이외에도 카카오 게임하기의 고포류 허용을 원하는 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재 DAU 270만을 기록하고 있는 애니팡 2의 유저들 중 상당수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흥행 가능성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디스플레이	-2.0%	실적전망

News & Issue

LG디스플레이, 2Q15 실적 패널가격 하락으로 둔화될 전망

LG디스플레이의 2Q15 실적은 PC 수요 둔화에 의한 IT용 패널가격 하락과 유럽 및 신흥국 수요 약화 및 TV세트업체들의 단가인하 압력 가중에 따른 TV용 패널가격 약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신규 출시에 의한 일시적인 비용 증가 등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주가는 KOSPI 조정 속에서 2H15에도 약세가 예상되는 패널가격 전망, 4Q15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신규라인 가동 우려, 기관 매도세 등으로 지난 1개월 및 3개월전 대비 각각 10.1%, 17.5% 하락.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주가가 미리 하락해 2015년 기준 PBR 0.8배 수준이지만 40인치대 TV패널가격이 하락할 경우 실적이 악화되면서 추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진행 중인 OLED TV패널의 수율개선을 통해 매출액증가와 수익성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re-rating 기대.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패널가격

News & Issue

6월 하반기 TV패널가격 모든 사이즈 하락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40인치대 TV패널가격이 일제히 하락. iHS에서(구 디스플레이서치)에서 발표한 패널가격을 기준으로 6월 상반기 대비 40인치, 42인치는 0.7% 하락, 48인치는 0.5% 하락. 이외에도 50인치 0.5%하락했고 32인치는 3.5%하락해 2015년 들어 가장 큰 하락세. 올해 들어 40인치대 TV패널가격이 모두 하락하기는 이번이 처음.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TV업체들의 재고가 증가해 이제 패널구매력이 낮아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됨. 하반기에도 TV업체들의 재고조정과 더불어 TV패널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모니터/노트북패널 가격도 6월 상반기 대비 1~2%하락을 지속. 1분기 PC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PC OEM업체들의 부품재고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TV패널의 공급이 약해지면서 전반적인 패널수급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IT패널가격 하락의 이유인 것으로 판단됨. PC업체들의 재고는 크게 높지 않아 2분기에 마무리되겠지만, 하반기 TV패널의 수급약화로 IT 패널가격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5월 대수기준 TV패널출하량이 전년동월 대비 8.2% 증가해 5월까지 TV업체들의 재고가 여전히 상승 중이었음을 알 수 있음. 2분기말 TV업체들의 재고수준은 지난 2013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2013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패널가격하락과 패널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비슷한 상황이 예상됨.

5월 TV패널의 면적기준 출하량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10.5% 증가해 1월부터 줄어든 면적수요의 증가효과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2인치 미만의 패널출하량 비중이 높았던 1분기는 예외로 하더라도 4~5월 TV패널출하량의 평균 사이즈는 40.6인치로 2014년 4분기 평균사이즈 41.2인치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선진국지역의 TV교체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대형TV수요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형TV패널의 수요증가 속도도 둔화될 수 있어 패널수급에 부정적. 하반기 LCD패널수급 약화가 예상되는 디스플레이업종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SDI	-2.1%	실적전망

News & Issue

삼성SDI, 2Q 실적 기대치 하회할 전망

삼성SDI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오는 4분기 이후 중국 합작법인 신규 라인 가동 시작과 테슬라 전기차 신규 진입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삼성SDI의 올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1.9조원, 영업이익은 38.8% 줄어든 184억원으로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주로 이차전지 부문으로 소형전지는 각종 전지 가동률 하락 및 고객사 판가인하 영향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이며 중대형전지는 EV 및 ESS 동반 매출 증가로 적자폭은 축소됐으나 대규모 적자를 계속할 전망이다. 다만 소재 부문은 케미칼 및 전자재료 부문 동반 호조로 2분기 대비 이익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삼성SDI는 4분기 이후 전기차용 이차전지로 인해 성장 모멘텀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 중대형전지 중국 합작법인 신규 라인은 현재 시안에 건설 중이며 올 4분기 가동을 시작해 트럭 등 상용차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 중국 신규 라인 규모는 1GW 이상으로 내년 매출이 최소 2,000억원 이상 가능할 전망이다.

2016년 중대형전지 매출은 전년대비 53.3% 증가한 8,095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됨. 테슬라 전기차항원통형 이차전지 역시 4분기 이후 신규 진입이 가시화돼 내년 매출 기여가 전망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3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2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2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